

키트론이 하면 뭔가 다르다

센서라이트 부문에서 국내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주식회사 키트론(회장 황태진)이 ESCO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5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키트론은 초기의 시행착오에 따른 버그를 제거하고 올해 본격적인 나래를 펼쳐기 시작했다. 이른바 통세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던 것. 특히 키트론의 황태진 회장은 올 정기총회에서 ESCO협회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ESCO 분야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이 기사를 기증: (w3master@energycenter.co.kr)



황태진 회장은 최근 <누가 내 치즈를 훔겼을까!>와 <경호>라는 책을 읽었다. 특히 자기 자신과 조직에 열정과 에너지를 북돋우는 구호처럼 쓰이고 있는 경호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상공부 기술지도사, ISO 9000 국제심사원(KPC), 상공부 공업기반기술개발 전문위원회 전기계측기 분과위원회 위원, 100ppm 품질인증심사원(중소기업청) 등을 지내기도 한 황 회장은 지난 92년 대한민국 석탑 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벤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터뷰 중에서

주식회사 키트론은 벤처기업이다. 98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 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다.

센서 응용 기술에서 한국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회사로 지정되었다는 자부심 아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지난 2000년 2월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또 5월에는 센서라이트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UL규격 인증을 받아 중소기업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다.

키트론이 ESCO사업에 뛰어든 최초의 목적은 순전히 질 좋은 자사 제품의 보급확대 차원이었다.

“부설연구소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키트론의 센서라이트는 최고의 제품으로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제품은 불량률이 0.04%에 불과해 1만 개 중 4개 정도이며 A/S 요청도 0.02%로 낮아 A/S전담요원을 1명만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하고 있는 황태진 회장은 ESCO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규격을 획득하고 우수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조명기기들을 분석해 보았다. 조명분야의 ESCO사업이 센서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기, 반사갓, 형광등과 같이 일체의 기기들이 사용되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키트론의 제품과 국내 최고의 제품을 결합한다면 하자 없는 ESCO사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기본적으로 황 회장은 ESCO사업에 대해 “에너지사용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ESCO들끼리 제휴하고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혜택을 주는 입장(ESCO)들끼리의 제 살 깎아먹는 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필요하다면 최고의 제품을 가진 기업과는 협조체계를 확실히 구축하여 ESCO사업에서도 ‘최고의 ESCO’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키트론은 지난해 12곳에서 ESCO사업을 진행했다. 청주 럭키아파트, 부산 동래화목타운, 인천 대우삼환아파트를 포함해서 천안의 소년교도소, 영등포수도사업소, 국세청, 강서세무서 등지에서 주로 고효율조명개체공사를 벌였다. 올 3월 현재 누적건수 18건에 금액면에서는 2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키트론의 현재 직원은 40명. 99년 27억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38억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해마다 50%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키트론은 올해는 ESCO사업을 더욱 확



그 동안 키트론이 취득한 각종 인증서 및 확인서들이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운조 ESCO팀장, 박종국 사장, 황태진 회장)

총하여 80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하거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SCO들은 올해도 하고 싶은 만큼 ESCO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ESCO사업의 진행과정에 항상 본사의 Q/C부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크하는데 있습니다. 「이중의 방화벽」이 마련됨으로서 에너지소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는 반드시 성실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SCO의 신뢰성 확보야말로 ESCO 사업 성공의 밑거름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황 회장은 경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확실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 첫째가 바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라’는 것. 대기업이 진입 가능하거나 우후죽순처럼 중소기업들이 끼여들 수 있는 분야를 가급적 피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분야를 테마로 삼는다. 금융자동화기기(지폐·주화 자동교환기, 거스름돈 지급기)와 센서 응용기기(가스검지기) 등이 좋은 예이

다.

둘째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정당한 가격에 납기 내에 공급한다는 것. 고객이 제품에 불만을 가질 수 없도록 원초적으로 불량률을 제거해 버린다.

셋째는, 직원 복지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다.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주들에게도 최대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남은 이익은 불우등기 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것이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황 회장은 생각하고 있다.

키트론이 ESCO사업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센서라이트와 아파트에서의 개별난방이다. 특히 ESCO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올 에너지융합리화자금 지원지침에 주택용 보일러 개체가 포함됨에 따라 키트론은 전국 각 시도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가정용 보일러사들과는 고효율기자재 보급을 위한 협조체계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신생 ESCO로서 활약 발판에도 기여할 것
 지속가능한 동반 ESCO사업도 살펴본다

키트론은 아직 ESCO사업에 참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신생업체이다. 하지만 그 어느 ESCO보다 에너지절약투자사업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 열심인 회사이다.

황 회장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ESCO가 자체 자금으로 실시한 ESCO사업을 실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부채비율의 상승 문제도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도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회장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ESCO협회 정기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ESCO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미 많은 분들에 의해 거론되었다”며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회가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키트론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원하여 에너지사용가들을 위한 에너지절약사업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켜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 ‘한 번 사명감을 가지고 해보자’는 분위기가 사내에 넘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호서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전자공학과 교수를 역임한 황태진 회장은 이른 바 노력파에 속한다. “일하지 않으면 받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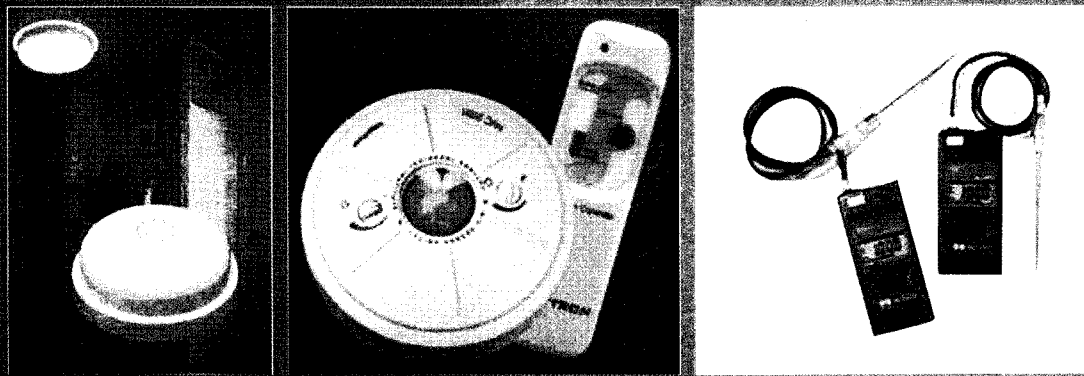
않지만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정직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는 벤처에 대해서 “모든 CEO는 기본적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직원들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트론은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과제인 G-7 Project(과제명: 실내환경 쾌적화 감성측정기 및 제어기 개발, 스마트 센서 및 센서 어레이 개발 연구)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과제명: TSM 기술을 이용한 고속 입력장치 개발)에도 참여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에 있어 타 회사와 차별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ESCO사업에서도 특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다.

성난 파도처럼 고난과 역경이 밀어닥쳐도 눈 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믿음이 있다. 키트론이라는 ESCO가 21C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당당함에 기대를 걸어본다.



키트론의 자랑인 센서라이트와 센서응용 가스검지기